

윤남진의 시민사회&종교비평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연구위원장

주류 개신교, 갈등전략 통할까?

개신교가 현 정권이 끝나기 전에 권력이 작용하는 모든 곳에서 불교와 전방위적인 1:1 갈등관계를 부상시킬 모양새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대구 팔공산역사문화공원 조성은 무산시킨 예가 그렇고, '템플스테이'에 대해 특정종교 포교지원이라며 비난하다가 한국기독교총연합이 '처치스테이'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 그렇다.

나는 이런 주류 개신교계의 행동이 앞으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확장될 것이라고 판단하며, 이를 '전방위 갈등전략'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알맞다고 생각한다. 고의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고차원적인 선교전략이다. 그럴 수 있다고 냉정히 볼 수 있다.

주류 개신교가 '갈등전략'을 전면화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주류 개신교의 충성도 높은 고객들은 전면적 갈등상황이 조성돼 사회적으로 다소간의 지탄을 받게 되더라도 어지간해서는 기존 제품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모종의 확신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 정치권력에서는 개신교계가 1등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도 반영됐을 것이다.

고교 시절부터 '좋은 그리스도교인들'과 교류해오고 있는 필자로서는 주류 개신교의 현재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

통계적 차원에서 분석해 볼 때 한국의 개신교는 2002~2004년을 기점으로 선교의 정체 혹은 마이너스성장, 신성장 동력 창출의 실패 등이 겹치면서 미군정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저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수급조절이 안 되는 과도한 신학과 졸업생 수, 무인기 신학대학의 문제, 시스템교회 전략에 따른 교회의 대형화로 인한 소규모 교회의 목회환경 위축 등 개신교 내부의 경쟁상황이 한국사회 전체 종교시장의 경쟁을 격화시키는 진원지가 되고 있다.

2005년 인구센서스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된 것이지만 개신교계로서는 충격적이었다. 1995년 인구센서스 조사 당시보다 개신교인의 절대 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는 10년간 성장된 인구를 대입해 보았을 때 약 100만 명이상이 감소한 격이 된다.

1995년 대비 2005년의 전체 종교인구 증가는 237만명이었다. 여기에서 종교인

구 중 개신교인이 차지하는 비율 38.8%를 대입하면 종교인구 성장 분에서 92만 명이 늘어 정상이고, 여기에 개신교인 절대인구 감소분 15만 명을 더하면 약102만 명이 감소한 결과가 된다.

사실상 2004년도에 이미 개신교계는 이런 결과를 예측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 전략 수립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2004년 발간한 <한국교회 미래리포트>이다.

이 모임에 소속된 교회들의 면면을 보면 합리적인 중도적인 성격의 교회들이라고 생각했던 교회지도자들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이 조사보고서에서조차 "최근 들어 일어나고 있는 성시화운동(Holy Club Movement) 등에 목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과 사회를 섬기는 평신도 지도자들과 기관장들을 도울 필요가 있다"며 표현은 완곡하지만 중요한 새시대 목회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로써 4년 후, 드디어 장로대통령이 탄생하게 되고 정치권력과 개신교회의 융합은 필연적인 것이 된다. <계속>

최근 조계종 등 불교계는 헌법상 국가의 전통문화 창달 의무에 대한 주장을 주축으로 '민족문화창달론'을 주요 아젠다로 부각시키고 있다.

윤남진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연구위원장은 전통이나 민족문화에 대해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하며, 한국전래 100년을 넘긴 기독교 문화도 일부분 우리 민족문화의 일부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윤 위원장은 "공정과 정의"의 문제로 지금의 종교적 갈등상황을 다루려는 안된다. 특히 자유민주정부 존립의 기초인 '시민적 관용과 불관용'의 문제로 종교적 갈등이 우리의 정치질서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로 다루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월대보름 이웃들과 함께 온정 나눠

불교계 다양한 행사 마련

정월대보름 행사가 불교계 곳곳에서 펼쳐졌다.

서울 성북구 화계사(주지 수암)에서는 2월 16일 '제5회 달집태우기 한마당'이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가수들의 공연과 소원지 적기, 달집 태우기 등이 진행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2월 15일 300여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월대보름제시풍속 행사 '여화 동심 보름달이로세'를 진행했다. 어르신들은 신묘년을 맞이해 마

련된 '福田과 함께 정월대보름 체험하기'와 각 종 민속놀이를 즐겼다.

조계종 신흥사복지재단 속초시노인복지관(관장 묘근)은 17일 속초시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 200여명과 속초시효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 어르신 50명에게 대보름 부럼을 나눠줬다.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법해)소속 40여개 사찰 스님과 신도 2000여 명은 17일 오후 포항 화진 해수욕장에서 구제역 희생가축 천도와 정월대보름 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이은정 기자, 손문철 대구지사장

제사로 인한 갈등 이제 그만!

포교원, 2월 25일 불교식 가정제사 표준화 공청회 열어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중)이 불교식 가정제사 정립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선다. 포교원은 2월 2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제44차 포교총재연찬회에서 '불교식 가정 제사

표준화를 위한 공청회'를 마련한다.

공청회는 시연회와 토론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포교원 포교연구실에서 발간 계획 중인 <불교 상·제례 안내서>에 따른 '불교식 가정제사(명절차례)' 시연회를 선보인다.

2·3부에서는 시대적 환경 변화에 적합한 불교식 제사 표준 지침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어나는 기자

연꽃마을, 스님간병비 지원 사업 결과보고

모금액 8000여 만원 집계... 26명 스님과 가족에게 4900여 만 원 지원

연꽃마을(대표이사 각현)은 2009년 9월부터 진행된 '스님 및 스님 부모님 간병비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2월 14일 발표했다.

연꽃마을은 후원성금으로 이루어진 모금액 8000여 만원을 2009년 9월부터 현재까지 26명의 스님과 스님 부모님에게 4900여 만 원을 지원했다.

각현 스님은 사업초기에 사부대중의 후원이 늘어나면 스님들의 간병비와 요양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연꽃마을은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고, 2010년 1월부터 스님에 대한 간병비 및 요양비 지원을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다. (031)898-1486 이어나는 기자

박기범 기자의 라후라존자를 찾아서

“젊은 사람들 봉사활동 꼭 필요”

15년 간 한 자리서 봉사활동 펼쳐온 김용수 어르신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이웃들이 많다. 함께 사는 세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다. 현대불교신문에서는 매주 우리시대 '라후라존자'를 찾아가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그들의 열정을 들여본다.



김용수(72·사진) 어르신은 15년째 묵묵히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김용수(72·사진) 어르신은 15년째 묵묵히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72세라는 나이를 의심케 한다. 김 어르신은 '2010년 한국불교 자비나눔 축제'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열정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어르신은 1997년부터 노인요양시설 '묘회원'에서 15년 가량 목욕 봉사를 이어왔다.

"묘회원에서 생활하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나의 선지식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지만 내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용수 어르신은 젊은 시절에 감상신 수술을 2번이나 받았고, 지금도 약을 복용하고 있다. 한 때 몸무게가 30kg까지 내려갈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몸이 아플 때 어르신은 타인을 위한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시작한 봉사는 어르신의 삶을 바꿔놓았다. 자신보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참여해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침태기 같은 성격도 여유로워지면서 건강도 좋아졌다. 김 어르신은 현재 매일 1시간 이상 걷

기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다지고 있다.

"봉사활동이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창 모임에서도 나를 보고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가 종교까지 바꾼 친구들도 있습니다."

봉사를 통한 삶의 변화가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김 어르신은 불공을 올리고 범회에 참여할 시간을 줄이더라도 꼭 봉사활동에 참여하라고 강조한다. 본인도 15년 동안 한번도 봉사활동에 빠지거나 늦어진 일이 없다.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거나 쑥스러워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김용수 어르신을 만나면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김 어르신은 봉사활동은 시작보다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중간에 그만두면 봉사를 받던 사람들도 상처를 받기 때문이다.

"봉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늘어났는데, 참가하는 사람들은 줄고 있어 걱정입니다. 자신 밖에 모르는 요즘 아이들에게 봉사는 꼭 필요합니다."

현재 조계종자원봉사단 팀장을 맡고 있는 어르신은 앞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작은 바람이다. 김용수 어르신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도 젊은 사람들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꾸준히 오래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 아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시작하면 봉사활동이 누구를 위한 활동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각 사찰 폭설 피해 '이상 무'

강원도·부산 교구본사들 현황점검... 군, 지자체 협조로 재설

동해, 삼척, 부산시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가운데 해당 지역 본·말사에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말인 2월 12일과 13일 사이에 강릉

과 동해, 삼척 등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는 최고 1m가 넘는 눈이 내렸다. 부산에도 최고 16cm가량의 눈이 쌓였다. 폭설이 계속되자 각 교구본사들도 말사 피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진출임로에 눈이 쌓여 이용에 불편을 겪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訃 告

(圓) 曹溪宗 元老 竹庵堂 正樂 大律師 教區葬 (寂)

大韓佛敎曹溪宗 元老 竹庵堂 正樂 大律師께서 世緣이 다 하시어
佛紀 2555(2011)年 2月 17日(陰 1月 15日) 午後 5時 23分 京畿道
華城市 萬儀寺에서 法臘 53年, 歲壽 73世로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 ◆ 焚香所: 萬儀寺 (京畿道 華城市 東灘面 中里 140)
- ◆ 永訣日時: 佛紀 2555(2011)年 2月 21日 (陰 1月 19日) 午前 10時
- ◆ 永訣式場: 龍珠寺 (京畿道 華城市 松山洞 188)
- ◆ 問議 및 連絡處: 萬儀寺 031)376-6005

大韓佛敎曹溪宗 元老 竹庵堂 正樂 大律師 教區葬
葬儀委員會 委員長 第2教區本寺 龍珠寺 住持 正乎

門徒代表 性直 合掌

한국불교 전통의례 수강생 모집

안채비를 중심으로 한 올바른 일용의식의 정착과 한국 불교 전통 재 의식의 계승·복원·발전을 위해 전통 의례를 전승할 뜻있는 학인들을 모집합니다.

- 교수진 _ 대한불교 조계종 어산장 동주원명
_ 불교 의식 전공 이수자
_ 불교 의식 및 음악학 관련 박사학위자
- 교육내용 1. 일용 권공 의식(상용의식·상주권공·안채비·홀소리)
2. 의식진행을 위한 법구 연주(금고·태징·법고·호적 및 장단)
3. 한국 불교 전통 재 의식(영산재·수륙재·예수재·시왕재)
4. 한국 불교 전통 의식무(바라무·법고무·나비무)

- 자격기준 _ 비구·비구니
- 교육기간 _ 이수성도에 따라 차등 적용
- 개 강 _ 2011년 3월 2일 오후 2시
- 교육일시 _ 매주 1회
- 면접 및 오리엔테이션 _ 2011년 3월 2일(수요일) 오후 2시 흥원사 교육관

주관 _ 대한불교 조계종 어산·범패·작법 보존회
서울시 강서구 가양1동 226번지 흥원사 02) 2658-3100